전법 일기

대학생들과의 만남 출가하길 참 잘했다

나의 대학 시절은 불안했고, 초조했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많아 지쳐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어려워진 집안 형편에 사회적으론 IMF까지 터졌으니…. 시대와 내 형편을 고려하면 빨리 안정적인 취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나의 기질은 인간과 삶에 대해 좀 더 사색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싶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인간에 대해 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란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터라 다짜고짜 사회로 내몰리는 내 처지에 저항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에 난 사찰 수련회 광고를 봤다. 4박 5일에 부담 없는 비용이라 바로 신청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과 참선, 발우공양, 108배, 묵언, 차수, 마지막 날 1080배까지 참 엄격한 일정이었지만 당시에는 여름방학 동안 한 사찰에서 몇 차례 수련회를 개최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낙산사와 해인사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로 강남 소재의 큰 사찰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법회에도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해인사 수련회 자원봉사도 자원해 한 달간 봉사하고 인터넷 카페도 개설해 카페지기로 활동하며 운영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들을 만나기도 하고 연령과 직업을 초월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 삶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더불어 참선에 묘한 매력을 느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습의사 스님이 주신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 화두는 밑도 끝도 없는 의정의 세계로 몰고 갔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불교를 공부하면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출가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기에 그런 내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성철 스님이 계셨던 백련암에 3000배를 하러 갔다. 3000배는 해봐야 출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담이지만 3000배를 끝내고 뿌듯해하고 있던 그때 백련암에서 절을 하고 계시던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하루 1만배를 하고 계셨다.

그렇게 3000배를 끝내고 동화사 양진암으로 출가했다. 양진암은 비구니 선원이다. 행자생활과 강원 4년을 마치고 양진암에서 상노스님 시봉하는 소임을 맡고 있을 때였다. 딱 출가한지 5년이 되던 해였는데 상노스님을 시봉하며 문득 '아 이 길은 5년으로 끝낼게 아니구나. 평생 하는 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대학시절의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진지 오래였지만 상노스님의 따뜻하고 평등한 보살 같은 사랑을 보며 나도 그런 사랑을 주는 수행자가 되고 싶었다.

지금은 출가한지 20년이 훌쩍 넘어 포교당을 운영하며 대학생 법회를 맡고 있다. 많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 대학생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이유는 내가 출가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마음상태를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우리 법우들도 진정한 사랑, 보살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기를. 그래서 사회의 곳곳에서 등불이 되기를. 참 신기하게도 이런 보조자의 역할이 내 수행을 더 깊고 간절하게 해준다.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시현 스님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③ '안티에이징'이라는 허상

나이듦은 질병이 아니다

현대국가의 이념이 복지를 목표로 할 때 우리 사회는 보건과 장수에 대한 찬가로 무성했다. 100세 시대를 노래하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혜택을 누릴 것이라 기대감에 부푼 것이다. 실제로 국가 행정체계에서 보건사회부의 명칭이 보건복지부로 바뀐 것을 본다면, 복지의 이념이 보건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복지(福祉)라는 문자는 한 사람(一)의 입(口)을 만족시키는 정도의 밭(田)을 바라보는(示) 것(福)이거나 분수를 알아 멈추는(止) 행위를 가르치는(示) 것(祉)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복지의 원뜻은 동양적 또는 불교적 사고방식이 상당히 내재된 표현이다. 멈춤이나 바라봄, 그리고 이를 알거나 가르치는 실천이 복지의 근간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이에 비해 복지의 서구적 의미는 동양적 인식과 상당히 다르다. 영어로 표현되는 Health & Welfare의 의미는 말 그대로 육신과 정신이 튼튼하고 일상을 잘 지내는 것이라는 뜻이다. 서구적 복지의 의미는 욕망을 전제하고 있다. 이 욕망성취의 적극성은 소비와 연결돼 자본주의적 가치로 직접 한정된다.

젊음에 대한 집착은 항노화(Anti-Aging)로 설정되며, 미용과 건강 그리고 정력의 신화를 양산하고 있다. 복지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장수시대를 찬탄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는 질병퇴치에 집중하며 건강을 복지이념의 한 축으로 제시한다. 그 결과의 하나는 노화현상을 질병의 일종으로 파악했다. 늙음을 극복할 대상으로 간주했기에 이를 퇴치하고 부정한다.

재주도 없으면서 소란하게 자랑하며 구호를 외친 일
지금에 이르러 누가 진짜와 허풍을 가릴 것인가
(伎倆無亂稱呼 至今誰解辨眞虛)
–〈선문염송(禪門拈頌)〉, H76, 405b8–9

서구적 복지 의미는 '욕망' 전제
욕망 성취는 자본주의와 연계돼
노화, 의료기술로 극복 대상 인식
老死 본디 없어… 질병화는 癡心

노화가 질병이라는 서구적 시선은 온당한가? 한 사람의 생애를 생로병사로 표현하는 불교적 관점은 연기적 흐름으로 일생을 파악하는 것이다. 노와 병이 없는 예외적 경우는 요절과 급사가 있을 수 있다. 대체로 태어남에서 비롯한 삶이 완숙과 쇠퇴를 거쳐 소멸에 이른다는 것을 이해해 반영한 것이다. 이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늙음의 진정한 의미는 완숙의 다른 말이다. 노숙함으로 해석되는 노화현상을 질병으로 등치시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늙음이라는 불편한 말이 저주가 아니다. 노화현상은 질병이 결코 아니다. 생물학적 의미에서 노화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되거나 생체의 항상성 반응이 느려지기에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니 억지부리며 청춘을 붙잡거나 되살리려 애를 쓸 일이 아니다. 12연기의 흐름으로 한 생애를 들여다보면,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에 바탕을 둔 집착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업에 대한 과정의 연속이다.

천만 봉우리 모두 다 다녀 보니 길들은 더욱 험해
멈추고 돌아 와서야 비로소 옛 고향(雲房)이 떠오른다.
(行盡千峯路轉高 肯歸方憶舊雲房)
–〈선문염송〉, H76, 410c6–7

제행이 무상하다는 점에서 무명도 없고 늙고 죽음에 이르는 노병사(老病死)가 없다고 반야심경은 일러주고 있다. 노사가 본디 없거늘 늙음을 질병과 동의어로 여기고자 하는 발상은 한마디로 어리석음 때문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미디어 불교 소비에 대한 단상

최근 네이버 웹툰 '룸비니'가 연재를 시작했다. 박태준만화주식회사가 제작과 투자를 맡은 약수 작가의 '룸비니'는 불교에 기반한 사이비 종교인 '일각교'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룸비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현재는 2화까지 공개됐으며, 유료화된 미리보기로는 7화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웹툰에서는 일각교라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정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장면들이 보여진다. 프롤로그에서 스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살인을 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아이들을 이용해 노상전도를 하는 모습은 불교와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다.

이밖에도 네이버 웹툰 '킬러경찰'에서는 암살집단 화국사(사찰)의 수괴가 스님이고, '하이픽션'이라는 유튜버는 '스님 똥군기'를 주제로 스케치코미디 시리즈를 제작 중이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극적 소재로 불교를 소비하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앞선 1980~90년대에는 영화 〈성철〉, 〈비구니〉 등이 불교계의 반발로 제작 중단됐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미디어 홍수 시대에 불교폄훼 등의 단선적인 비판으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특히 팬 층이 두터운 작가나 크리에이터일 경우 되려 반발로 이어지기 십상이기에 단호하면서도 객관성이 담보된 대응이 필요하다. 불교적 미디어 비평과 분석, 모니터링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불교를 잘 담아내는 작품들을 선별해 대중에 홍보하는 것도 현재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불교언론문화대상 대상작으로 공명 작가의 웹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선정한 것은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라캉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했다. 이는 작금의 미디어의 풍토를 대변한다고 본다. 현대 사회의 미디어는 과연 종교라는 프리즘으로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 것일까.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움직이지 않는 팔보다
고향가족 먼저 떠올라"

스리랑카 드라하 씨, 골절 · 근육파열 부상
치료비 · 고향 부모님 생계 걱정에 눈물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